
한국 교회도서관의 운영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Korean Church Libraries and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이명희(Myeong-Hee Lee)**

【초 록】

교회교육의 정상화와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하여 교회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교회도서관 설립은 5년 미만인 교회가 많고, 교회도서관은 시설, 자료구입비가 여전히 빈약하고 전담사서의 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서적 구성비가 종교서적 구성비보다 높으며, 2007년 이후에 소규모로 단독 신축된 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자료가 약 80%에 달하였다. 많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동화구연, 가족문화행사, 아동문화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교회도서관의 적극적인 설치와 자료구입예산의 확보, 비도서자료의 다양한 구비,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비와 검색기능 강화, 전담직원의 확보, 교회내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타기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주장하였다.

【키워드】

교회교육, 문화프로그램, 교회도서관의 역할, 어린이도서관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s of Korean church libraries. The results from 22 church librarie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some factors such as material organization, quantity of materials, facilities, staffs, budgets, public services, users and classification systems. Current libraries are very small in its facility, quantity of the materials and the budget, and lack of the full-time librarian. Recently, children's libraries are established among small churches, and their budgets and

public services are stable.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the church libraries are made: the pastor's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church library for missions' sake, establishment of more church libraries, acquisitions of various non-book materials, budget security, necessity for a full-time librarian, provision of various types of services and cooperations among church libraries.

【Keywords】

Church Library, Children's Library, Public Services

1. 서 론

1.1 연구의 문제점 제기

2010년 9월말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수는 약 5만여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 8개의 교회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에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CBS 노컷뉴스 2010년 10월 21일자).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초창기부터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교회도서관에 대한 관심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몇몇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도서관을 운영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 곳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대형교회가 많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회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상명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9월 27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다행이 최근 몇 년 사이 교회도서관을 선교의 도구로 인식하여 교회도서관을 건축하는 교회의 수가 미약하나마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도서관 서비스 제공도 과거의 목회자와 교인 위주의 교회도서관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의지에 의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어린이도서관 등의 형태로 건축되는 교회도서관이 최근 5년 동안 약 10개관 정도 생겨났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침투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역자나 교회학교 교사들은 많지만 정작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오늘날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 교육의 두 축인 학교와 교회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문화를 전수하고 윤리적이며 창조적인 문화를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실패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나 교회는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교회에서 먼저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교회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교회학교와 관련하여 교회도서관의 활성화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교회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당면한 기독교 문화 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의 평생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입장에서도 교회도서관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교회도서관은 교인이 아닌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하는 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교회구성원들만을 위한 폐쇄공동체'라는 지탄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가 교회구성원들만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함으로써 자신들끼리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 바깥의 지역주민의 삶과는 유리되어 그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회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면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교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교회교육의 정상화와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교회도서관을 활성화시켜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교회교육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먼저 교회도서관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교회도서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회의 연혁과 교인수, 교회도서관의 설립연도, 교회도서관 개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수, 직원 및 자원봉사자 수, 열람 및 대출자격 및 현황, 자료구입 예산 및 시설, 장서 현황, 자료조직 현황, 전산화 현황, 제공프로그램 내용 및 홈페이지 활용 등을 조사하고 교회도서관의 서비스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운영 분석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교회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법을 통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교회 중에서 교회도서관이 설립되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의 교회도서관을 선정하였다. 특히 선정된 22개 교회도서관은 전담직원이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도서관들이다. 설문지의 응답을 위하여 직접 교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토대로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접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곳은 전화상담을 통한 면담법과 전자우편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응한 응답자들은 교회도서관 담당자 또는 교회업무 분장 중에서 교회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목회자들이다. 교회도서관의 규모나 실제 업무가 과거에 비해 위축된 경우도 많았고, 교회 규모에 비하여 교회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소규모의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자체 교회도서관을 운영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서관의 활성화에는 담임 목회자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 매우 고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회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두 달 동안이다.

1.3 선행연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100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교회나 교인수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도서관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교회도서관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교회도서관에 대한 연구도 문헌정보학 연구 중에 극히 미미하였으며, 극소수의 학술잡지 논문과 함께 약간의 석사 학위 논문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온 바 있다. 외국에서 발간된 논문도 1980년대 이후에 극히 미비한 현실이다. 본 선행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약간의 국내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김남석(1973)이 교회의 사회교육적인 제 조건과 종교적인 출판에 관하여 분석한 뒤, 교회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창선(1978)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관점에서 독서의 의의를 다루면서 한국교회도서관의 진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정진식(1988)은 한국교회도서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교회도서관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학술잡지에서 김명옥(2000a)은 교회도서관의 직원, 자료, 시설, 봉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회도서관 규정개발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으며(2000b), 교회도서관이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 이외에 신학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2000c).

학위논문 중심의 연구에서 김미경(2004)은 교회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박지원(2004)은 교회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엄혜선(2005)은 서울시내 교회도서관의 자료구입, 조직, 대출, 이용, 협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송성수(2009)는 교회교육과 기독교문화, 사회봉사라는 접근을 통해 교회도서관 운영을 논하였다.

이상에서 교회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교회도서관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 연구가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도서관 운영의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여 현황파악을 주로 한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최신 운영현황을 파악한 뒤에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2. 교회도서관의 역할

21세기의 교회는 멀티미디어 사회와 소셜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상호작용할 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으며, 교회도서관도 현대사회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교회구성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도서관의 역할 또한 교인들의 영적성숙을 지원하는 교회도서관 본연의 업무와 교회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부적인 기능과 함께, 사회 속에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역할하는 외부적인 기능의 두 가지로 양분된다. 김명옥은 다양한 교회도서관의 역할을 일반적인 교회도서관, 신학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박물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명옥 2000c). 본 연구자는 교회도서관의 역할을 본연의 교회도서관, 교회자료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역할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자가 언급하는 여러 측면에서의 교회도서관의 역할이 그 역할을 완전하게 개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교회도서관도 기타 다른 유형의 도서관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 뿐이다.

2.1 교회도서관 본연의 역할

교회도서관의 일반적인 역할은 기독교 자료의 수집과 보존, 교회자료의 생산과 제공, 교회교육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기능 등이다. 또한 교역자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서연구와 설교자료 제공, 교육과 상담, 봉사지원을 위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역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책을 비롯한 자료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지원 2005).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위한 영성개발, 문서선교, 인격수양, 상담치료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교회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적인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막상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2.2 교회사료관의 역할

교회도서관은 교회사료관 역할을 수행하여 소속교회에서 발행되는 역사적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소속교회 목회자의 저서, 설교테이프, 비디오, 주보, 안내서, 신문 등 교회에서 발생하는 정보자료를 수집, 축적,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실제 담임목사의 설교테이프조차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자료의 수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대 담임목사의 설교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주제별로 검색하게 한다면 그 내용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독서 및 상담치료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교회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도서관으로 보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보관되고 있는 설교 CD를 MP3로 변환해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극대화 하거나, 별도의 CD 설교집을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2.3 공공도서관의 역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교인들의 심신수련, 자아 개발과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도서관은 다양한 주제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교회 인구 구성분포가 높은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과 화병은 불행히도 교회에 다니는 주부들에게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경제적 성취에 역행하는 자아성취 욕구의 불일치, 잉여 여가시간의 확대, 경쟁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주부에 대한 지나친 가족 구성원의 기대 등으로 많은 주부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상담 및 독서치료에 대한 자료와 함께 여가 활용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2019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2.9%로 예상되며, 평균 나이도 80세를 넘어서는 등 여가시간을 많이 가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은 취미분야, 건강, 한글이나 외국어 교육과 교양 정보, 정보화 교육, 취업정보, 자원봉사

관련 정보 등으로 나타났다(이명희와 김미초 2010). 성인 교인들의 노령화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교회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도서관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자료와 함께 상담과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제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학교도서관의 역할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자료가 부실하고 전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드물어서 학생들에게 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도서관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 지식습득, 인성개발, 독서습관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목표가 오로지 대학 진학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래의 교육의 목표를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회문화와 기독교 가치관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여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을 즐기며, 동아리, 학원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를 형성하는 N세대 학생들의 사고를 교회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학교의 공과공부는 과거 수년 전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비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으며, 학생들은 목회자나 부모 또는 교사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정수를 체득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하면 교회학교를 떠나가서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편, 어릴 때부터 책을 읽지 않고 게임과 인터넷 등과 친숙한 학생들은 기존 언어구조를 파괴한 인터넷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의 신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각한 언어전달능력의 부족과 인성교육의 부재로 나타난다. 나아가 중독과 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과 심리적인 조울증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학교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교회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개발과 인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5 어린이도서관의 역할

교회도서관은 유아, 취학전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린이의 인성 개발, 언어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인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게임, 인터넷 등 자극이 너무 많은데, 특히 어린이가 tv, 게임 등 영상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정상적인 사고 훈련을 방해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자주하게 된다고 한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특히, 활자매체는 어린이가 많이 상상하고 사고하게 만드는데 비해 인터넷과 게임을 통한 영상매체는 사고 발달이 더디지고 의사소통이 부정확해져 '소통의 부재'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책을 읽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논리, 분석의 힘을 키울 수 있는데 영상만 접한 어린이는 사고하는 훈련을 못받게 되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조선일보 2010년 11월 2일 12면).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의 아이들이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게임 내용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문제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서관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우수한 책을 많이 제공하여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훌륭한 인성을 지닌 아이로 자라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교회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3.1 교회도서관 환경

3.1.1 교회 역사

먼저 <표 1>에서 조사대상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설립 '5년 이하'가 36.4%, '6년에서 10년'이 22.8%, '20년 이상'이 18.1% 순으로 나타나 약 60%의 도서관이 10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경력을 지닌 교회에서 만들어졌으며, 특히 36.4%는 5년 미만의 역사를 지닌 교회에서 설립되었다.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곳은 '나들목가족도서관'으로서 3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도서관으로 문화소의 지역인 용두동, 보문동을 중심으로 대광고60주년기념관 1층에 설립된 가족도서관이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20년 이상의 연륜을 가진 교회에서 교회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김명옥 2000a),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회와 교회도서관을 거의 동시에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은 교회도서관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3.1.2 교인 수

교인수가 '1천명 이상'인 교회는 24개로 88.8%의 비율을 나타냈고, 교인수가 '1천명 미만'인 교회는 4개로 18.2%였다(표 2 참조). 이중 교인수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교회에서 가장 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3%), 교인수 '5천명 이상에서 1만명 미만'인 경우와 '1천명 미만'인 경우 각각 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인수 75만명을 가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명성교회, 소망교회, 지구촌교회, 영락교회 등이 출석교인 3만명 이상의 초대형교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45.5%의 교회가 3천명 미만의 교인을 가진 중형 이하의 교회에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는 1만명 이상의 대형교회 중심으로 도서관을 설립하던데 비하여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의지만 있으면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들목가족도서관'을 비롯한 문래동교회의 '반딧불도서관', 삼청감리교회의 '어린이도서관', 예

<표 1> 조사대상 교회의 역사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계
응답수	8	5	2	3	4	22
비율	36.4%	22.8%	9.1%	13.6%	18.1%	100.0%

<표 2> 조사대상 교회의 교인 수

구분	천명 미만	천-3천명 미만	3천-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1만-5만명 미만	5만명 이상	계
응답수	4	6	3	4	2	3	22
비율	18.2%	27.3%	13.6%	18.2%	9.1%	13.6%	100.0%

닭교회의 '미라클 차일드 어린이도서관'은 교인 수가 300명에서 9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2007년도 이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다.

3.1.3 교회도서관의 역사

〈표 3〉에서 살펴보면, 교회도서관의 역사가 '5년 미만'이 36.4%, '5년-10년 미만'이 22.8%, '20년 이상'이 18.1%, '15년-20년 미만'이 13.6% 순으로 나타나 교회도서관은 교회설립 초기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밀려 교육관, 문화시설, 수련원, 카페 등 다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설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된 도서관은 대부분 대형교회 부설 도서관으로서 환경적목사기념도서관(1975년), 여의도순복음교회도서관(1977년), 소망교회도서관(1989년), 남포교회도서관(1989년), 명성교회도서관(1990년)이다.

교인수가 1천명 조금 넘는 교회로서 비교적 오래전에 건립된 교회도서관은 1989년 건립된 '수색장로교회도서관'과, 1993년에 건축된 은광교회의 '김중대목사기념도서관'이 있다. 수색장로교회도서관은 이미 20년 전에 은평구청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수색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김중대목사기념도서관 또한 은광교회에서 운영하는 은광문화센터, 은광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은평구 불광동에서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교인수가 적은 신생 교회에서도 교회도서관을 꾸준히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특성화된 교회도서관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설립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교회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목회자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교인

수와 연륜에 상관없이 교회도서관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1.4 교회도서관의 성격

도서관명과 업무를 중심으로 교회도서관의 성격을 조사한 결과, 교회도서관으로서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 도서관은 59.1%(13개관), 어린이도서관은 22.8%(5개관), 공공도서관 13.6%(3개관), 신학도서관 4.5%(1개관)이다(표 4 참조). 특히 이 중에서 어린이도서관 성격을 지닌 도서관은 예닭교회의 '미라클 차일드어린이영어도서관', 삼척감리교회의 삼척어린이도서관 '꿈과 쉽', 문래동교회의 '반딧불어린이도서관', 샘물교회의 '샘물어린이도서관', 동숭교회의 '옹달샘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샘물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2006년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들이다. 또한, 은광교회의 '김중대목사기념도서관', '수색장로교회도서관'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공공도서관을 표방하고 서비스한 전통있는 도서관들이고, 2008년 세워진 '나들목가족도서관'은 가족 모두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이다. 한편, 열린교회의 '퓨리탄도서관'은 신학도서관 특성을 가진 도서관이다.

3.2 교회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3.2.1 자료구입 예산

2010년도 자료구입예산을 조사한 〈표 5〉의 결과에서 자료구입비 예산이 '5백만-1천만원 미만'이 31.9%, '1천만-3천만원 미만'이 27.6%, 나머지는 각각 13.6%이다. 특히 두 도서관은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가진 세 도서관 모두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자료구입비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

〈표 3〉 교회도서관의 역사

구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응답수	8	5	2	3	4	22
비율(%)	36.4%	22.8%	9.1%	13.6%	18.1%	100.0%

〈표 4〉 교회도서관의 성격

구분	교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신학도서관	합계
응답수	13	5	3	1	22
비율(%)	59.1%	22.8%	13.6%	4.5%	100.0%

〈표 5〉 연간 자료구입비 예산(2010년 기준)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5백만원 미만	5백만-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6천만원 미만	계
응답수	3	3	7	6	3	22
비율(%)	13.6%	13.6%	31.9%	27.3%	13.6%	100.0%

들은 교회단체로부터 도서를 기증받거나, 교회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기증받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구입비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료구입예산의 범위는 전혀 없는 것부터 5,000만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여주는데, 최소한의 신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료구입비를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1천만원 내외의 비교적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서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교인수가 300명에 불과한 삼청감리교회의 '삼청어린이도서관'에서는 교회에서 북카페를 운영하여 교회지원금과 북카페 수익금으로 도서관 운영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예이다. 삼청동 주변이 고궁, 박물관, 북카페 등이 많은 문화의 거리인 것을 고려하여 삼청감리교회는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본교회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성문화강좌, 독서교실, 체험학습(여름방학), 영어동화읽기, 악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미라클 차일드어린이영어도서관'은 예담교회에서 운영하는데, 500여명의 교인을 가진 소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어린이들에게 영어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목회 방침에 따라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영어선교원을 운영하며 스토리텔링, 부모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2.2 보유 자료 현황

(1) 장서 보유량 현황

〈표 6〉에서 장서량을 조사한 결과, 장서가 '5천-1만권 미만'이 40.9%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만-3만권 미만'이 31.8%(7개관), '3만-5만권 미만'이 18.1%의

비율로 나타났다. 과반이 못 되는 약 40%의 도서관은 '5천-1만권 미만'의 장서를 가진 소규모 도서관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장서량이 많은 곳은 명성교회도서관 9만여권, 수색장로교회 37,000여권, 은광교회 33,000여권,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3만여권, 여의도순복음교회 3만여권, 소망교회 23,000여권, 지구촌교회 2만여권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대형교회와, 전통을 가진 은평구의 두 교회에서 각각 2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교인수가 5천명 이상 되는 몇몇 큰 교회에서는 5천여권 정도밖에 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나 설립된 지 5년이 되지 않는 어린이도서관들은 평균 1만여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2) 종교서적과 일반서적의 비율

전체적으로 일반서적이 종교서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17개관으로 77.2%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는 7년전 조사한 김명옥의 연구와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교회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종교서적이 일반서적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조사한 결과는 예상과 달리 교회도서관이라고 하여 종교서적만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적도 함께 비치되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또 일반서적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표방한 교회도서관들이 건립되어 교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목회 정책 때문에 일반서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서적과 종교서적의 비율이 9대 1의 분포를 나타낸 도서관들은 '지구촌교회도서관'을 제외하면 모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들이다. 한편, 열린교회 '퓨리던도서관'은 100% 기독교 서적만 가진 신학 전문도서관의 장서구성을 보여준다.

〈표 6〉 장서 보유량 현황

구분	1천-5천권 미만	5천-1만권 미만	1만-3만권 미만	3만-5만권 미만	5만권 이상	계
응답수	1	9	7	4	1	22
비율(%)	4.6%	40.9%	31.8%	18.1%	4.6%	100.0%

〈표 7〉 종교서적과 일반서적의 비율

종교대 비종교 서적비율	종교서적	90%:10%	80%:20%	70%:30%	60%:40%	50%:50%	40%:60%	30%:70%	10:90%	합계
응답수	1	2	0	2	0	0	5	7	5	22
비율(%)	4.6%	9.1%	0	9.1%	0	0	22.7%	31.8%	22.7%	100.0%

(3) 어린이자료의 소장비율

어린이자료 소장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10%-30% 미만'이 42.2%, '70%-90% 미만'이 26.1%, '30%-50% 미만'이 21.1%의 비율로 나타나 약 70%의 도서관이 50% 미만의 어린이자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할 것).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소규모로 신축된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는 어린이자료가 약 80%에 달하였다. 한편, 소규모이지만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회와 열린교회의 어린이자료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4) 연속간행물 보유량

연속간행물 보유량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9 참조), 54.6%가 '10종 미만'의 연속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31.8%는 '10종 이상 20종 미만'의 연속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40종 이상 50종 미만'의 연속간행물을 보유한 도서관은 '명성교회도서관', '소망교회도서관', '한경

직목사기념도서관' 3곳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도서관들이다. 정보의 최신성과 시사성을 위하여 연속간행물을 비치하는 것이 좋으며, 예산이 허용한다면 기독교 잡지뿐만 아니라 일반잡지, 신문 등 대상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연속간행물을 비치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5) 비도서자료 보유량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개 교회도서관 중에서 약 과반에 달하는 45.4%(10개관)는 비도서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점 이상 1백점 미만'과 '1백점 이상 5백점 미만'이 각각 18.2%이고, '5백점 이상'이 18.2%이다. '1천점 이상'의 비도서자료를 가진 도서관은 '수색장로교회도서관'과 '명성교회도서관'이다. '수색장로교회도서관'은 DVD, CD,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를 주로 가지고 있으며 '명성교회도서관'은 학위논문 9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자료의 형태는 책자형, 오디오북, e-Book, CD, DVD, 비디오 테이프 등

〈표 8〉 어린이자료의 소장 비율

어린이자료수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합계
응답수	1	8	4	1	5	19
비율(%)	5.3%	42.2%	21.1%	5.3%	26.1%	100.0%

* 소망도서관과 퓨리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을 별도 운영하므로 제외함.

〈표 9〉 연속간행물 보유량

구분	10종 미만	10종 이상 20종 미만	20종 이상 30종 미만	30종 이상 40종 미만	40종 이상 50종 미만	합계
응답수	12	7	0	0	3	22
비율(%)	54.6%	31.8%	0.0%	0.0%	13.6%	100.0%

〈표 10〉 비도서자료 보유량

구분	없음	1점 이상 1백점 미만	1백점 이상 5백점 미만	5백점 이상 1천점 미만	1천점 이상	합계
응답수	10	4	4	2	2	22
비율(%)	45.4%	18.2%	18.2%	9.1%	9.1%	100.0%

의 비도서자료들도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3.2.3 사용 분류표

각 교회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KDC가 63.7%로 가장 많으나 DDC와 DDC+KDC를 사용하는 곳도 각각 13.6%가 되며, 두 도서관은 자체제작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2000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이 KDC를 사용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도서관은 DDC를 사용하였다. 그 중, 종교분야는 DDC로 분류하고 일반 주제분야는 KDC로 분류하는 도서관은 기독교서적에 비해 일반서적이 비교적 많은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이다. 이처럼 몇몇 도서관이 두가지 분류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DDC가 기독교를 세분하여 자세히 전개되어 있는 반면에 KDC에서는 기독교 분야의 분류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교회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까닭이다. 그러나 KDC 4관은 DDC를 참조하여 기독교분야를 세분하였기 때문에 교회도서관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KDC가 우리의 사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는 도서관에서는 KDC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도서관에서는 자체 제작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관에만 있는 특수자료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KDC 등의 표준 분류표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교회도서관과 공동편목 등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재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2.4 소장자료의 온라인 검색 가능여부

소장자료의 온라인 검색 가능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과반수 도서관인 12개관(54.5%)에서는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나, 1개 도서관에서는 내부 검색만 가능하였으며, 9개관(40.9%)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하루속히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웹상에서 소장자료를 검색하여 소장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예약 및 연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외부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도서관을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81.8%(18개관)는 소개하고 있었으나 18.2%(4개관)에서는 아직까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도서관에 대한 안내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5 봉사 프로그램 실시 내용

교회도서관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프로그램 실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시하는 곳은 9개관이고, 실시하지 않는 곳은 13개관이었다.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9개의 교회도서관에서 실시되는 봉사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9개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19개 프로그램 중, 독서지도가 42.1%, 동화구연 21.1%, 가족문화행사 15.7%, 아동 문화행사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독서지도에는 독서클럽, 주부대상 독서지도, 독서캠핑 등이

<표 11> 사용 분류표

구분	DDC	KDC	DDC + KDC	자체제작 분류표	합계
응답수	3	14	3	2	22
비율(%)	13.6%	63.7%	13.6%	9.1%	100.0%

<표 12> 소장자료의 온라인 검색 가능 여부

구분	불가능	내부검색만 가능	내·외부검색 가능	합계
응답수	9	1	12	22
비율(%)	40.9%	4.6%	54.5%	100.0%

<표 13> 교회도서관에서 실시되는 봉사프로그램

구분	독서지도	동화구연	아동문화행사	체험학습	가족 문화행사	부모교육	합계
응답수	8	4	2	1	3	1	19
비율(%)	42.1%	21.1%	10.5%	5.3%	15.7%	5.3%	100.0%

포함된다. 가족문화행사(15.7%)의 내용은 뮤지컬, 연극, 건강강좌 등이 포함된다. 아동 문화행사는 영어동화, 인형극 상영, 북아트 등이다. 이 이외에 체험학습과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대형교회 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프로그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2.6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교회도서관의 평균 인적자원은 전문사서가 0.7명, 전임 비전문사서가 0.8명, 자원봉사자가 월 22.9명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조사된 22개 교회도서관 중에서 13개의 도서관에서 1명 이상의 전문사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명성교회도서관, 소망교회도서관, 나들목가족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를 2명씩 배치하고 있으나 9개 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를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남포교회도서관, 대구동일교회도서관, 오륜교회도서관은 전임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참고봉사 제공과 교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들 도서관은 대부분 일요일 하루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소극적 봉사가 이루어지는 곳들이다. 교회도서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사서 또는 최소한 훈련된 전임직원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사서와 교역자 및 자원봉사자간의 업무 분담과 원활한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표 14〉 교회도서관 운영의 평균 인적자원

구분	전문사서	비전문사서	자원봉사자
응답수	0.7명	0.8명	월 22.9명

3.2.7 이용자 현황

(1) 열람 및 대출 자격

교회도서관 이용자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90.1%의 교회도서관에서는 본교회 교인뿐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였지만, 일요일 하루만 본 교인에게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는 두 교회는 교회 규모가 2,000명, 6,000명의 중형 이상의 교회로서 교회학교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교회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등록 회원 수

모든 교회도서관에서 회원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표 16〉과 같이 등록 회원수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36.4%, '5천명 이상' 22.7%,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과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이 각각 13.6%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교회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구촌교회 13,300명, 명성교회 10,000명 등으로 웬만한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이다. 그런데 〈표 14〉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도서관의 인적자원은 전문사서가 0.7명, 전임 비전문사서가 0.8명으로 매우 취약한 형편이며,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의 업무를 떠맡아서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3.2.8 교회도서관의 면적

교회도서관 면적을 비교해 보면,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도서관은 '31-90㎡ 미

〈표 15〉 열람 및 대출 자격

구분	본교회 교인만 열람 및 대출 가능	일반지역주민도 열람 및 대출 가능	합계
응답수	2	20	22
비율(%)	9.1%	90.9%	100.0%

〈표 16〉 등록 회원 수

구분	5백명 미만	5백-1천명 미만	1천-3천명 미만	3천-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본교인 전체	합계
응답수	2	3	8	3	5	1	22
비율(%)	9.1%	13.6%	36.4%	13.6%	22.7%	4.6%	100.0%

〈표 17〉 교회도서관 면적

구분	30㎡ 미만	31-90㎡ 미만	91-150㎡ 미만	151-300㎡ 미만	300㎡ 이상	계
응답수	3	6	4	5	4	22
비율(%)	13.7%	27.2%	18.2%	22.7%	18.2%	100.0%

만' 27.2%, '151-300㎡ 미만' 22.7%, '91-150㎡ 미만'과 '300㎡ 이상'이 각각 18.2%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중, '30㎡ 미만'의 소규모인 곳은 3개관으로서 13.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60㎡ 이상의 규모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이 14개관으로 44%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항은 소규모 도서관을 가진 세 교회의 교인 규모는 소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교회의 교인수는 평균 8,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 초반에 약 1,370㎡의 면적에 단독건물로 건축된 명성교회도서관은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명성교회도서관은 당시에 아파트촌이 다수 들어섰지만 공공도서관이 근처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사각지대인 고덕동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독특히 수행했던 것이다. 또한, 샘물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4개 어린이도서관의 평균 교인수는 약 5백명밖에 되지 않지만 도서관 면적은 소규모가 아닌 약 125㎡이다.

3.2.9 교회도서관 개방일 및 이용시간

교회도서관의 개방일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18〉과 같다. 일주일 중 '주 6일 개방'이 15개관으로 45.5%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일 개방, 2일 개방, 7일과 5일 개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도서관의 특성상 주 1일 개방은 일요일에만 개방한 경우이고, 주 2일은 예배가 있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곳은 대부분 본교회 교인이 주 이용대상자인 소극적인 개방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 건물도 소규모인 경우이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서관이 되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더 확대하여 일주일에 5일 이상, 일반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

겠다. 그리고 모든 교회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오전에 개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관일 중 오전부터 개관하는 곳이 20개관으로 74.1%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약 4분의 3 정도가 이용자를 위하여 오전부터 개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만 개관하는 곳은 4개관으로 14.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오후에만 개방하다가 주일은 아침 일찍부터 예배가 있기 때문에 본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일만 오전부터 개관하는 곳이 3개관으로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

4. 교회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교회 역사가 100년을 넘었지만 교회도서관 설치와 운영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는데, 교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도서관 수를 늘리고, 전담사서를 채용하며, 자료구입 예산을 확충하며, 수집자료의 내용 등에서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4.1 교회도서관의 적극적인 설치

2010년 10월 현재, 한국교회 수는 5만개에 달하며 교인수는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험적으로, 교회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교인수는 1,000명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학생과 젊은이들이 교회학교와 교회를 떠나고 장년 이상의 성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성도수의 감소, 특히 젊은층의 외면으로 교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교회 구성원도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젊은이들의 교회 외면현상을 목회자

〈표 18〉 도서관 개방일

구분	일주일 개방	주6일 개방	주5일 개방	주2일 개방	주1일 개방	합계
응답수	2	10	7	0	3	22
비율(%)	9.1%	45.5%	31.8%	0	13.6%	100.0%

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젊은이들을 게임과 중독 등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편, 많은 중대형 이상의 교회에서 교회운영을 여전히 성인 교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카페 설치로 교인들이 커피와 다과를 즐길 수 있도록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서점과 기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가 단적인 예들이다. 성인 교인을 위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초석이 될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독교 문화와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회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성인 교인들에게 양질의 기독교 서적을 제공하거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회도서관의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

교회도서관이 많이 설치되면, 기독교 서적의 출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출판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이래 종교서적 분야의 출판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인데, 2004년에는 2003년 6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9%의 종교서적만이 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문을 닫은 기독교계와 출판업계와 서점업계도 상당수 발생하였는데, 교회도서관과 기독교 출판업계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교회도서관이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꾸준히 구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4.2 안정적인 자료구입 예산 확보

조사된 교회도서관 중 약 60%의 도서관이 월 1백만원이 안되는 매우 적은 자료구입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처럼 부족한 예산으로는 도서와 함께, DVD, CD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갖추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혀 자료구입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어서 균형잡힌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목회자의 설교 준비와 교회학교 운영, 교인들의 정신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신간 기독교 관련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연간 도서구입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교회 규모는 작아도 1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서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삼청어린이도서관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여 자체 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이러한 자체적인 수입 확보방안을 심도 있

게 고려해볼직하다.

4.3 보유 자료의 확충

4.3.1 장서 보유량 확충

본 연구결과에서 약 40%의 도서관이 7천권 정도의 장서량을 가진 소규모 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대형교회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도서관에서는 대개 2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나, 교인수가 5천명 이상 되는 몇몇 중형 이상 교회도서관에서 5천여권 이하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어서 최소한 1만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종교서적과 일반서적, 그리고 어린이자료의 비율은 개별 교회도서관의 특성과 이용대상자의 성격에 맞게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4.3.2 비도서자료의 확충

본 연구에서 수색장로교회는 DVD, CD,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를 약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외의 도서관은 비도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한가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는 점이다. 교회도서관 자료도 책자형태뿐 아니라 오디오북, e-Book, CD, DVD, 비디오 테이프 등의 비도서자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교회도서관도 양질의 영화 및 영상자료,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종교음악과 기독교음악의 CD 및 Tape,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영상자료, 워십댄스 비디오, DVD,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실황장면, 미술 작품 자체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름, 비디오, DVD와 더불어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4.4 온라인 자료검색의 접근점 확대와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강화

조사된 과반수 도서관에서 자료의 온라인 검색이 가능했지만 검색은 제목과 저자 등 기본적인 검색키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다양한 접근점을 가진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여전히 상당수의 도서관에서 내부 검색만 가능하거나 아직까지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하루속히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웹상에서 소장자료를 검색하여 소장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대출되었는지 확인하여 대출 예약 및 연장,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외부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도서관 자체의 홈페이지를 보다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어도 매우 조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교회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내용 구성이 메뉴 사용과 조직과 체계화, 네비게이션 등 구조에서 충실을 기하며,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이용자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80%의 교회 홈페이지에 도서관 홈페이지가 소개되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매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왕이면 배너로 광고하거나 교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기본메뉴 중의 하나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5 독서 프로그램의 확대

4.5.1 독서지도 시행

교회도서관은 일반적인 독서지도와 함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독서지도를 실시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올바른 독서법, 양서 선택법, 독후활동 등 여러 가지 독서지도를 연령과 대상에 맞게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사서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교회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소개코너를 활용하여 신간도서를 안내한다.

교회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 읽어주기, 독후감 감상화 그리기, 동화구연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독서를 시행하면 자녀의 수능성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므로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선교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하여 독서회 운영, 일일 독서교실, 자모독서교실, 독후감 발표회, 문학의 밤(시낭송대회), 모범이용자 및 다독자 표창, 도서관 독서주간, 독서문화행사,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쓰기 및 모집, 계절 독서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4.5.2 독서치료 시행

독서치료는 치유 효과를 가진 책을 읽으면서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 자아에 대한 이해와 자아실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독서를 통한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이다. 이는 비단 치료적으로만 아니라 예방적으로도 활용되는데, 그 대상은 정신질환자, 비행청소년 등 문제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압축성장에 따른 정신과 육체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주부, 노인을 비롯한 정상적인 성인들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수험부담으로 학생들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 독서치료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들의 인격 성장과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내적치유 세미나, 가정치유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이 세미나를 교회도서관이 주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가정선교회 내적 치유팀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 더불어 그와 관련된 도서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별도로 특별코너를 만들어 독서치료와 관련된 도서와 내적 치유 세미나와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 주소 안내와 함께 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자료의 활용도 늘어날 것이다.

4.6 문화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최근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교회도서관도 시설,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한다면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간이 허락한다면 문화활동을 주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회도서관이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교인인 지역주민들에게도 교회도서관의 문화행사를 통해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교인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간접적인 전도방법이 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관련분야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지원에 대한 열의를 유도할 수 있다. 교회도서관의 문화센터 교육내용은 문학, 서예, 미술, 어학, 음악, 건강, 사회, 취미, 교양 등 다양하며 교회 자체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분할 필

요가 있다.

4.7 전담직원의 확보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교회도서관의 인적자원은 전문사서를 비롯한 전담인력에서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교회도서관의 역할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서관 사서의 역할도 다양한데 비해, 대개 1인의 사서가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의 범위도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즉 교회사서는 일반적인 사서, 온라인 참고사서, 전산사서, 어린이자료 전문가, 학교도서관 사서, 신학주제사서 등 1인 다역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도서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사서 또는 최소한 훈련된 전임직원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이후에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받은 전임직원 없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도서관 업무가 행해지는 현재의 교회도서관의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4.8 교회 내 교육기관과의 연계

교회에서는 각 연령별로 교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회도서관에서는 각 연령별로 교회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구비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도 자료를 즉시 구비해놓아야 한다. 교회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내의 교육기관, 선교·봉사기관,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아에게 지능발달과 인성개발을 위한 블록과 같은 장난감과 그림책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교육과 연계한 독서지도,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주일학교 성경공부, 방학 중 독서캠프 실시, 성경퀴즈 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 취미,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자료제공 등이 가능하다.

4.9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봉사 프로그램 활용

사서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지역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구성원들의 연령별, 직업적, 종교적 성향 등 다양한 특성에 관하여 정통해야 한다. 모교회가

봉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루어진 소외계층 지역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기관 근처인지, 장애인 밀집지역인지, 이주민이 많은 곳인지 혹은 다문화가정이 모여 사는 곳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교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만약 양 부모가 낮에 일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면 교회도서관에서는 방과후학교라든지 저학년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 위치한 교회도서관에서는 한글 교실이나 한국문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교회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의 기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교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에 대한 문제, 또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위해 가장 이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도서관 사서는 지역 주민의 연령대별 모임,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모임, 취미별 모임, 각종 신앙 프로그램,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 하여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도서관의 위치는 교회 내부보다 외부에 자리를 잡아서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회도서관은 휴식과 교제, 재생산, 교육, 문화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외적 환경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외부 지역주민들이 교회도서관을 이용할 때 건물 외관을 통해 그 교회도서관이 자신의 미적 감각과 함께,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떻게 고려했는지를 판단한다.

4.10 타 기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성

도서관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서관 상호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도서관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성은 해당 교회 목회자의 인식 부족, 개별 교회간의 이해 조정 능력의 부족, 개별 도서관의 전문인력이나 장서의 부족, 시스템과 조직의 표준화 미비, 각종 행정적 제도나 실질적 운영자원 등의 미흡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공공도서관간, 그리고 대학도서관간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 사회환경의 변화, 교회도서관 이용자층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회도서관에서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도서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형 교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소속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뿐만 아니라 타 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체제이다.

이미 특성화된 전문 교회도서관들과의 협력체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해 공공도서관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개별 교회도서관 입장에서는 자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신학서지 공동목록 및 신학학위논문 D/B 등을 구축하였는데, 개별 교회도서관에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교회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교회도서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의 방법으로 22개 교회도서관의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교회도서관 역사가 '5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구입비는 연간 1천만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어린이도서관에서는 1천만원 내외의 비교적 안정된 예산 확보로 사서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77.2% 도서관에서 일반서적이 종교서적보다 높은 자료구성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0%의 도서관이 50% 미만의 어린이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에 소규모로 신축된 어린이도서관 등에서는 어린이자료가 약 80%에 달하였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동화구연, 가족문화행사, 아동 문화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40%의 도서관이 7천권 정도의 장서량을 가진 소규모 도서관이었으나 전통을 가진 교회도서관에서는 대개 2만권 이상을 비치하였다. 제언으로는 교회도서관의 적극적인 설치와 자료구입예산의 확보, 비도서자료의 다양한 구비,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비와 검색기능 강화, 독서치료 시행, 전담직원의 확보, 교회내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타기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주장하였다.

시사점으로 과거에는 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교

회에서 교회도서관을 설립하던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교인수가 3-4백명이 되는 소형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마인드에 따라 교회도서관을 설립하는 추세이며, 2007년도 이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 대표적인 이러한 도서관들이다. 이처럼 교회도서관 설치 여부는 교인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목회자의 마인드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교회도서관은 본 교회와 분리되어 문화센터나 독립건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도서관 입구가 본 교회 건물을 거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비교인인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2005년 이후에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비교적 탄탄한 자료구입 예산과 다양한 어린이자료를 비치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교회의 도서관들이 단지 자료대출과 열람만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교인수가 많고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교회에서 교회교육의 중요성과 현재 교회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의 큰 축을 담당할 교회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료수집이나 공간구성, 인적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주고 있다. 한편, 많은 대형교회가 성인 교인을 위한 카페, 수양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예산과 공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다음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교회교육의 한 축인 교회도서관 설치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설치된 교회도서관도 명목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곽지원. 2005. 『교회도서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 김남석. 1973. 교회도서관의 필요성. 『도협월보』, 14(2): 11-16.
- 김명옥. 2000a. 교회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 11(1): 119-173.

- 김명옥. 2000b. 교회도서관 규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285-312.
- 김명옥. 2000c.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의 발전단계에 관한 고찰. 『도서관』, 385: 3-29.
- 김미경. 2004. 『정보화 시대에서의 교회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선. 1978. 한국교회도서관의 진로. 『도협월보』, 19(3): 13-19.
- 송성수. 2009. 『교회교육과 교회도서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엄혜선. 2005. 『한국교회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희, 김미초. 2010.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비교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41-62.
- 이준직. 1985. 『성공적인 교회도서관 운영』. 서울: 한국기독교독문회원.
- 장현운. 1991. 『우리나라 교회도서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진식. 1988. 한국교회도서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 43(1): 44-62.
- McMichael, B. 1998. *The Church Librarian's Handbook*. Grand Rapids: Baker Books.